

서문



2018년 5월의 끝자락,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국제저널 무형유산』제13호를 선보이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 무형유산 연구는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와 정보 교류 및 협업을 통해서 지역 사회 간 소통 및 문화 교류의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최근 많은 박물관들이 무형유산의 양상 등을 다루는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형유산과 관련한 조사·연구·자료 수집은 세계문화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국제저널 무형유산』제13호에는 26명의 뛰어난 무형유산 전문가들이 쓴 13편의 연구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 현황에 대한 논문을 시작으로, 관광업과 정치적 환경, 뉴미디어를 통해 살펴보는 무형유산,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식공동생산, 무형유산과 종교, 전승자와 페미니즘 등 세계화로 인해 변형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다루는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입니다. 치열한 연구의 결과로 나온 소중한 논문을 기고해 주신 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우리 저널의 지속적인 역사를 만들게 해주는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무형유산의 다양성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물관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무형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국제저널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무형유산의 국제적인 조사·연구, 보호, 전승을 위한 영상 민족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통문화 및 타문화에 대한 영상자료 확보를 위해 ‘세계민속영상 공모전’ 개최를 비롯하여, 올해에는 민속영상 콘텐츠의 박물관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 및 방법론을 공유하기 위해 ‘무형유산과 영상 아카이브 국제 학술대회’ 개최하면서 공모전 영상도 상영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저널 무형유산』이 전체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나 전 세계의 무형유산을 교육하고 소개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널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널에 무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편집위원 여러분들, 책이 나오기까지 성실히 발간업무에 매진하는 우리 관 국제저널 담당자들, 무엇보다도 멀리서 가장 큰 열정을 쏟아 부어 주시는 알리산드라 커밍스 편집장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만이 탄실한 내용의 저널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욱 더 알찬 『국제저널 무형유산』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윤성용
국립민속박물관장